

5월호 소그룹 모임 교재 인도자용 자료

첫째 주 소그룹 모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삶(1)

제사(예배): 속죄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

찬송: 9장(새8장) 거룩 거룩 거룩, 183장(새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본문: 레위기1:1 -17

1.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지난 주간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함께 합니다.
3. 성경본문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다가오심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지금까지 제사를 직접 준비하여 드리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세하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레1:1-2)

답(1): 인도자는 질문을 먼저 읽은 다음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사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제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라고 말하고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며(김집사님은 어떤 제사였나요?) 각 자에게 묻는다. 소그룹원들은 ‘할아버지 제사가 기억이 남는다.’ 또는 ‘고깃배가 나가기 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가 제사를 지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등등을 이야기 할 것이다.

* 어떤 종류의 제사를 보거나 경험했는지 나누는 것은 예배에 대한 선입견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므로(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하여 보는 것이 좋다. 인도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제사의 경험을 나누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제사의 경험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입을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서는 안 된다.

답(2) 인도자는 제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적절한 기회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생각을 말할 때 인도자는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아, 그렇군요’라는 응답 등으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

*** 제사란 샤머니즘 및 조상숭배, 자연숭배 등과 관련하여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제물(먹을거리)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의 대상들에게 인간의 안전과 복락을 기원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기우제와 같이 어떤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유교적 배경에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신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게 된다.

2) 제사에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제물을 선택합니까? 그런 것들을 제물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제물이든 제물이 되기에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레1:3, 10, 14)

답(1) 인도자는 소그룹원들이 제사에서 제물이 필요한 이유와 자기들이 경험한 제물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하게 한다.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각자가 말하게 한다.

*** 제물은 제사의 대상(천지신명, 조상신 등등)이 먹는 것이기에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는 것, 최상품이 되어야 한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제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제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즉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레1:2-4)

답(1)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로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은 의식행위이다.

2) 제사의 행위에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레1:4)

답(1)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레1:4;4:4;8:15;민 8:10,12). 그 동물은 제사자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된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제물을 준비할 때 제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절차를 따라 제사를 준비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레1:6, 12)

답(1) 가죽, 머리, 기름

(2)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성결 의식의 한 행위로서 제물드리는 자의 후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진실한 내면적 부분만을 드린다는 뜻에서 가죽을 벗겼다. 둘째, 비록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자기희생을 상징하는 번제 정신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의 형태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 가죽을 벗겼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마음이 담긴 '전적 헌신의 제사'이다.

(3) 인도자는 소그룹원들에게 제사를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면 제물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제물을 규례대로 준비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

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것이고, 속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2) 제물을 준비할 때 씻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레1: 9, 13)

답(1) 내장과 정강이

(2) 내장에 붙은 온갖 더러운 이 물질들과, 매일 걸어 다니면서 흙이 붙은 네 다리의 아래 부분은 깨끗이 씻어야 단 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죄의 동기와 생각들,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까지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인도자는 소그룹원들에게 무엇을 깨끗이 씻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물어 본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3) 제물(수송아지, 양, 염소, 새 등)은 어디에서 잡으며, 또한 제물의 피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레1:5, 11, 15)

답(1) 제물을 잡는 장소는 여호와 앞, 제단 북쪽 여호와 앞,

(2)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3) 회막(會幕: '만남의 천막')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최초로 거주하셨고, 또한 인간들과 만나셨다. 특히 여기서 회막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심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요 1:14) 그리스도의 거주를 예표한다.

단 사면에 - 즉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림은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함이었다(출 12:13). 즉 피를 사면에 곁고루 뿌리는 목적은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나타내어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하나님께 속함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들어쓰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에 마땅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1)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린 자는 번제를 드린 후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레1:7-9, 12-13, 17)

답(1) '번제'는 가족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2)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할 때 드렸다. 헌신과 희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2)

(3) 번제를 드린 자는 자신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 절대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2)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레1:7-9, 12-13, 17)

답(1)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와 깨끗해진 자신을 다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 즉 죄사함을 받은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그러기에 그는 다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다. 죄책감 없는 기쁨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 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어 보세요(약2:14-26)

답: 인도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시는지 묻는다. 아마도 소그룹원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아니면 인도자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키는 이유와 그 유익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오늘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소그룹원들에게 질문을 한다.

소그룹원들이 나름대로 적용할 것들을 대답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다음 달에 그 실천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좀 더 조직적으로 적용을 이끌어 가길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한다.

1) 먼저오심 :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제사를 받으시도록 잘 드리기 위해 먼저 그 제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책을 보거나 성경공부에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겠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제사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 즉 일정을 정하고 제물을 고르는 일 등으로 나타난다. 예배를 모든 일 중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놓은 예배를 지킨다. 예배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며, 예배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예배에 입을 옷도 미리 정해 놓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점검한다. 예배 시간에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하여 예배드릴 준비를 한다(기도, 말씀 찾아놓기, 헌금준비 등등). 인도자는 소그룹 원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지 각자의 계획을 나누게 한다.

2) 만나주심: 예배의 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십자가의 구속)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자신의 언어로 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3) 다듬으심: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은총(죄의 용서)을 입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듯이 예배자는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곧 의(義:Justification)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義:Justification)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해 예배의 과정, 즉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건성으로 지나지 않고 하나 하나의 의미를 새기며 그 은혜를 간구한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의 고백으로 부른다. 대표기도 시간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므로 함께 기도에 동참한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한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내 자신을 담아 드리는 고백으로 드린다. 등등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주일예배 순서를 보고 각 순서에 내가 할 일을 생각하여 본다.

4) 들어쓰심: 번제는 모든 제물이 규례대로 준비되어 있어도 그 제물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나를 완전히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야 한다. 자신의 지정의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복종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한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한다.

4. 중보기도,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삶(2)

정결음식 규례: 문화를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

찬송: 210장(새421장) 내 죄 사함 받고서
215장(새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본문: 레위기11:1 -47

1.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지난 주간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함께 합니다.
3. 성경본문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다가오심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든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까?(레11:2)

답(1) 아마 소그룹원들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 답변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쟁할 필요는 없다.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하겠네요.'라는 말로 반응을 보이면 된다. 그러나 인도자는 마지막에 꼭 "뛰니 뛰니 해도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음식이 가장 귀하다고 봅니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2) 음식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음식을 가려 먹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을 가려먹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레11:3-8)

답(1) 각자가 음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 연설을 할 수도 있으니 간략하게 말하게 한다. 아마 대부분이 건강식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구별하여 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까? (레11:4, 10, 13)

답(1) 음식은 생명유지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과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예: 저혈당인 경우 우울증, 폭력적 성향이 나타남).

(2)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으로 금하신 짐승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음식으로 금하신 짐승들은 무엇입니까?(레11:5-7, 10, 13-19, 29-30).

답(1)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생물과 없는 것을 정·부정한 동물로 구분하여 지정하셨다(레11:2-8).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바다의 물고기(레 11:9-12), ② 공중의 조류(레11:29-31), ③ 곤충류(레11:20-24), ④ 땅에 기어다니는 것(레11:29-31)등이다. 그 이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반, 토끼, 돼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물고기, 독수리, 술개, 물수리, 말뚝가리와 말뚝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호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붙이,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등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지정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준이 되는 세 개의 단어를 찾아보십시오(레11:4, 10, 12, 20).

답(1) 새김질, 갈라진 굽, 지느러미와 비늘 등

이러한 생물들의 구분 즉 정·부정의 특성 및 구분은 그 생물들의 특성 및 삶의 양태, 사람에게 건강 및 위생학상 미치는 해(害)의 유무(有無)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정결한 짐승은 그의 특성과 삶의 형태가 온유하고, 깨끗하여 사람이 먹었을 때 식품으로서 많은 유익을 주지만, 부정한 동물은 그 특성이 포악 잔인하고, 부정하고, 삶의 형태가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의 그 고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선민으로서 깨끗하고 인애하며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어류의 경우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로서 정·부정을 결정했는데, 이는 어류의 특성과 활동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선민으로서 본분을 늘 유지하며, 원활한 영적 활동을 해야 할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왜 음식으로 금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그 주검도 만지지 말고 또한 그 주검이 접촉되는 것까지 버리라고 하셨을까요?(레11:24- 28, 31-40)

답(1) 당시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들이 덕이나 악의 상징들

로 사용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2) 육체적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당시 근동 지역의 기후는 음식을 쉽게 부패시킬 수 있는 기후였다. 이는 성경 본문에 죽은 짐승의 고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위생적으로 보면 이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병균으로부터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사체나 사체가 접촉된 곳에는 병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몸의 건강과 정결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축복이었다.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를 가진 타민족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한 민족의 생활양식은 그들로 하여금 민족 동질성을 갖게 하고 이러한 원리로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 올 수 있었다.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의들에 다른 민족의 것이 침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십계명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이방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정결한 음식만 먹으며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들어쓰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에 마땅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심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Priestly Kingdom)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대변하고 또 대속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선교적 책임을 위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한 음식문화의 개발은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레11:44)

답(1) 선교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자기의 구별됨 곧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의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즉 제사장 나라됨을 상실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선교를 할 이유도 능력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창17:14-2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 선교를 위한 전제가 된 것이다.

정결한 음식문화의 개발은 그들에게 요구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성을 지키게 했고, 이것은 결국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토대가 되었다.

2) 선교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문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개발한 문화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레11:45; 12-15장)

답(1) 정결법(fp12-15장)이 있다. 산모 정결법(12:1-5), 문둥병 정결법(13-14장), 유출병 정결법(15:1-33)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창1:28),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결과 아이를 출산케 되었을 때 그 아이와 산모가 피에 젖음으로써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이 정결법에서도 보혈을 흘리는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인한 속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

문둥병 정결법은 13, 14장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크게 사람 피부나 수염, 머리 등에 발생하는 것(레13:20-46), 의복에 발생하는 것(레13:20-46), 가옥에 발생하는 것(레14:33-53) 등이 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죄의 참혹성과 그 파괴성을 암시한다. 즉 문둥병이 피부나 의복, 가옥 등에 발하여 손상케 하고 번지는 것처럼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며 그 전존재로 퍼지게 된다는 악한 성질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문둥병의 정결 규례는 또한 어떤 추악한 존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됨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주기도 한다(레14:1-32).

유출병 정결법(레15:1-33)은 사람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피나 정액 등 액체의 물질이 흘러나오는 병을 지칭한다. 유출병 규례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근본 죄성이 있는 존재로 인간 자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치 못하며 부정함을 암시해 준다(마7:18-23). 또한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염되는 타인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롬1:32).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염려하신 것이었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받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다. 당시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만의 고유성을 간직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른 이방 신이나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염려하신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정결도 중요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어 보세요(약2:14-26)

답: 인도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시는지 묻는다. 아마도 소그룹원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아니면 인도자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키는 이유와 그 유익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오늘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속원들에게 질문을 한다.

소그룹원들이 나름대로 적용할 것들을 대답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다음 달에 그 실천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좀 더 조직적으로 적용을 이끌어 가길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한다.

1) 먼저오심 :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타문화에 접할 때 가장 먼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쉬운 문화가 음식문화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써 나는 음식문화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인도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소그룹원들이 대답하게 한다. 음식 문화를 그것이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2) 만나주심: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성결’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는 음식 문화의 성결, 곧 정결한 음식 규례는 조지 캔스대일(George Cansdale)이 연구로 밝혀진 것처럼 인간에게 온갖 해를 주는 동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중에서 내가 금해야 할 음식은 무엇입니까? 건강상의 이유와 신앙의 이유 즉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하거나 자제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이것들을 자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 여기서 인도자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소그룹원들이 말하게 한다. 소그룹 원들이 마약, 술, 담배 등등을 말할 것이다. 그대로 인정하라.

부정하고, 가증하고, 혐오스런 음식을 금하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고취시켜 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동질성 곧 연대감을 갖게 한다.

3) 다듬으심: ‘속죄’없는 ‘성결’은 도덕주의에 빠지고, ‘성결’이 뒤따르지 않는 ‘속죄’는 도덕적 무책임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롭게 여김을 받음)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성결)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음식문화를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음식문화를 갖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된 음식 문화를 지켜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소그룹원들은 술, 담배, 마약 등을 끊은 이야기, 어느 모임에서 상관이 술을 권했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이야기 등등을 나눌 수 있으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써 살겠다는 각오와 신앙의 도움이 되었는지를 나누게 하는 것이 좋다.

4) 들어쓰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의 빛’, ‘제사장 나라’로 세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함을 담은 문화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담고 있는 문화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발해야 할 음식 문화는 무엇이며, 또 다른 문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음식에 관한 것 외에 어떤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려해야 할 생활양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관혼상제(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제사)와 개업식 등과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은 절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참조 행 10:9~16; 골 2:16~17).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집니다.

4. 중보기도,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셋 주 소그룹 모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삶(3)

윤리: 생활성결을 통하여 거룩함을 실행하는 길

찬송: 212장 너 성결키 위해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레위기19:1 -37

1.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지난 주간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함께 합니다.
3. 성경본문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다가오심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이나 처세의 원칙 또는 신조 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온 삶의 원칙들이나 자기 신조 또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이나 신조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9:1-2)

답(1) 소그룹원들 각자가 자기 삶의 원칙이나 신조 습관 중 한 가지만 소개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각자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원칙이나 신조 또는 습관 등을 왜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게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중단하고 옆 사람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2)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행동하거나 처신 했을 때 어떠한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까?(레19:8)

답(1)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되고 그들과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특히 가나안 사람)과 구별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레19:37)

답(1)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셨다.

2)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레19:3-4, 10, 12, 14, 16, 17, 25, 28, 30, 31, 32, 34, 36, 37)

답(1) 인도자는 소그룹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왕자는 왜 다른 젊은이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소그룹원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인도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할 삶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레19:3-36)

답(1) 부모 경외, 안식일 지킴, 우상숭배 금지, 제사, 추수, 이웃관계, 장애인 관계, 재판, 형제, 원수, 동포, 이웃 사랑, 가축, 성관계, 과묵 심기, 피, 점, 술법, 미용 및 몸치장, 딸, 안식일, 성소, 신접한 자와 박수, 노인, 거류민, 재판이나 무엇을 추정할 때,....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막연하게 지시하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레19:3-36)

답(1) 포도수확(10):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했다.

(2) 이렇게 자세하게 방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야 실제로 삶에 적용하여 살기 때문이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따라야 한다.

들어쓰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에 마땅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이웃을 대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그 사회 안에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9-10의 말씀이 실행된다면 그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레19:9-10)

답(1) 인도자는 소그룹원들에게 마땅히 자기가 챙겨야 할 몫이지만 그 몫을 자기보다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넘겨준 일이나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후에 그들의 우애가 더욱 돈독하여졌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웃 간에, 한 동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을은 하나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약한 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안정된 견고한 사회이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9 :33-34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사회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레19:33-34)

답(1) 인도자는 소그룹원들에게 타민족 사람들에게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선대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누게 할 수도 있다.

(2)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게 된다.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어 보세요(약2:14-26)

답: 인도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시는지 묻는다. 아마도 소그룹원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아니면 인도자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키는 이유와 그 유익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오늘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숙원들에게 질문을 한다.

소그룹원들이 나름대로 적용할 것들을 대답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다음 달에 그 실천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좀 더 조직적으로 적용을 이끌어 가길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한다.

1) 먼저오심 : 사람들이 위대한 삶 또는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 위대하고 고귀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원칙이나 신조 등을 가지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러한 생활신조를 잘 실행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 만나주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신조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조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 다듬으심: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에서나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영역 전반을 돌아보며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의 생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규례를 정해놓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들어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이웃, 타민족,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4. 중보기도,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삶(4)

성일축제: 주일과 절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높이는 길

찬송: 56장(새44장) 지난 이레 동안에
58장 (새46장)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본문: 레위기23:1 -44

1.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지난 주간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함께 합니다.
3. 성경본문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다가오심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지금까지 살면서 빼놓지 않고 지키는 특별한 날이나 있습니까? 그 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을 지킴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레23:1-2)

답: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날을 특별한 기념일로 지킵니다. 예를 들면 생일, 결혼 기념일 등등 속원들에게 각자가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지 돌아가며 물어봅니다. 한 마디로 대답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특정한 날을 지킴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물어봅니다. 또는 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짧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여기서서는 어떤 유익을 얻었다고 말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유익이 있으시군요.’라고 응답하고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군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서는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간접적으로 느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 성도님들의 삶에서 특정한 기념일을 지킬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레23:3-8)

답: 사람마다 자기의 특정한 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꽃을 사 준다는가 아니면 음식을 차례 먹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각자에게 어떻게 그 날을 지키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속원들에게 왜 그런 방식으로 그 날을 지키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의 대답은 당연히 그 날의 의미를 깊이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속원들이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참 좋은 방법이군요....”등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며 다음을 넘어갑니다. “특정한 기념일에 특정한 방법으로 기념하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고 깊게 새겨지는군요. 특정한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참 도움이 되는군요”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정한 날을 여호와
의 절기로 제정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레23:3, 5-6, 10, 15, 24, 34)

답: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날로 제정해 주신 것을 성경 구절을 참고하여 찾
게 시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오십 일 절기, 쉬는 날, 초막절
등

2)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레23:4, 5-6,
10-16, 24, 27, 34, 42-43)

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
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
기 위해서 등등으로 답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대답을 해도 된다. 절기의 깊은 의미로는 이
절기들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고 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종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
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례를 따라서 절기를 준비하며 지키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유익)를 가져오게 됩니까? (레23:3, 6-8, 10-22, 27-29, 37-38, 40-41)

답: 먼저 정해진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는 유익을 말하기 전에 각 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
키라고 했는지 설명하게 하면 좋다. 제시해준 성경구절을 읽고 그대로 말하면 된다. 예를
들면 3절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고 답하면 된다. 절기를
지키는 각각의 방식을 살펴본 후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그 날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겠
는가 질문하면 된다. 올바른 대답은 제정된 특별한 날에 따라 지키는 방식이 다른 점이 있
는데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그 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규례를 따라 절
기를 지키면 그 날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고 답하면 된다.

2)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불문하고 제도화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레23: 8, 11-13, 16-20, 25, 27, 36-37)

답: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만들거나 아예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를 잊게 되며,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쓰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에 마땅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각 종 절기를 지킬 때 혼자서나 가족적으로 지키지 않고 성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임으로 갖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레23:7, 21, 24, 35-37)

답: 왜 생일을 혼자서 지키지 않고 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지키는지 질문한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나 가족별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성회로 모이도록 한 이유이다. 즉 성회로 모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임을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도록 한 것이다. 속원들에게 혼자서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해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곧 인식하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각 종 절기를 지킬 때 축제(공동예배)를 갖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축제를 경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레23:7, 21, 24, 35-37)

답: 속원들에게 왜 생일날 파티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물어보아라 파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바로 그 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공동체가 지키되 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로 모인다는 것이다. 축제는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즐거운 일임을 인식하게 된다. 건강한 공동체는 축제를 즐기는 공동체이다. 이것은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이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어 보세요(약2:14-26)

답: 인도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시는지 묻는다. 아마도 속원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 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아니면 인도자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키는 이유와 그 유익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오늘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숙원들에게 질문을 한다.

숙원들이 나름대로 적용할 것들을 대답할 수 있다. 숙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다음 달에 그 실천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좀 더 조직적으로 적용을 이끌어 가길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한다.

1) 먼저오심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흘러도 그 은혜를 말아야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은혜(축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각자가 대답하면 그대로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2) 만나주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의에 맡겨 두면 잊거나 태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지켜할 절기나 예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와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꼭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하듯이 모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리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각자가 대답하면 역시 그대로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혹시 숙원 중에 그 동안 참석하지 않던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 말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 숙원이 박수를 쳐서 격려해도 좋다.

3) 다듬으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특별한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는지 구체적으로 규례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철저히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보십시오.

이 질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한다.

4) 들어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킬 때 혼자서 지키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축제를 행하는 형식으로 지켰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회로 모여 축제(예배)를 행할 때 경험했던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의 절기나 예배가 공동체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인도한다.

4. 중보기도,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는 반드시 각자가 실천하기로 결심한 바를 놓고 기도하도록 시간을 주고 마무리 기도를 한다. 끝.